

같이 보기

: 김광석 길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글 서정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혼련소로 가는 길 ~’

머리를 짧게 자르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들으며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던 적이 있었다. 20대의 마지막을 넘어 갓 서른이 되었을 때, ‘서른 즈음에’ 곡을 들으면 가사 하나하나에 가슴이 저미며 웬지 쓸쓸해지는 마음이 먹먹하고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땐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그랬다.

군 복무 때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갑자기 전우 한 명이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곡은 원래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 갑자기 마음 한편이 몽글몽글 올라왔고 옆에 있던 후임병은 슬그머니 눈물을 흘렸다. 김광석 목소리와 가사가 그렇게 가슴을 헤집는다.

진솔한 목소리로 서정적인 발라드 및 1970년대 모던포크의 맥을 잇는 포크송을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광석은 안타깝게도 1996년 1월 6일 향년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노래하는 철학자로 불리기도 했던 김광석을 추억하기 위해 그가 태어난 대구시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에 김광석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김광석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문화거리로 재탄생하였다.





김광석 길은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로 '2010년 방천시장 문정성시' 사업의 하나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11개 팀의 작가들이 참여했고 지금의 김광석 벽화거리가 되었다. 김광석 거리에는 작은 콘서트홀이 있어 연중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나 김광석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김광석 길 페스티벌 등 김광석을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났다. 김광석 거리에서는 공기총 쏘기, 뽑기 등 옛 추억의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예전 TV 속 교복을 대여하여 입고 거리를 거닐며 예쁜 사진을 찍으며 거리를 체험하기도 한다.

김광석이 태어난 방천시장은 크고 작은 다양한 맛집이 새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예전 구 도심지역이 다시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변모하여 대구시민이 사랑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거리이긴 하지만 대구를 방문하였다면 거리를 거닐며 김광석을 추억해 보고 방천시장 주변 맛집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맥주 한잔 들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기를 추천해 본다. 🍷

